

## HEADLINE NEWS

### 시민 안전 위해 「자동차방치 방지조례」 시행 (교토)

일본 교토市는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자동차의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 「자동차방치 방지조례」를 제정,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市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하천부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들뿐만 아니라, 사유지상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들도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가 적용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市는 우선 방치된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한 후, 이 소유주에게 일정 기한 내에 차량을 철거토록 강제할 수 있다. 만일 차량 주인이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자동차 인정기준’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의 유무와 파손상태 등을 조사한 후 철거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판정이 곤란할 때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폐자동차 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하게 철거·처분할 수 있다.

(www.city.kyoto.jp/koho/shinbun/4ks03.pdf)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난개발 막기 위해 아파트 건설 동결 (동경: 江東區)
- ② 항공사진으로 정밀입체지도 제작 (교토)

### 도시환경

- ③ 대체연료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통한 청정도시 조성 (로스앤젤레스)
- ④ 먼지 발생 막기 위해 골재채취장 단계적 폐쇄 (북경)
- ⑤ 도시 전역에 ‘꽃단장’ (독일: 브레멘)
- ⑥ 지자체청사 ‘옥상녹화’ 민관합동으로 확대추진 (동경)

### 도시교통

- ⑦ 아랍지역 최초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아랍에미리트 두바이市)
- ⑧ 도심부 상가진흥 위해 주차장을 공동이용할 수 있는 「주차권」 발행 (일본: 오이타市)
- ⑨ 통합형 「주차·버스 카드」 도입 (영국: 노팅엄市)

### 사회복지

- ⑩ ‘가난한 예술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시행 (밴쿠버)

### 행재정

- ⑪ 시립도서관, ‘도서대출 인터넷 예약 서비스’ 실시 (오사카)
- ⑫ 공직선거에 전자투표 도입해 투 개표의 정확성 및 신속성 도모 (동경)
- ⑬ 월드컵 기간동안 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안내센터 및 24시간 통역센터 운영 (동경)

### ① 난개발 막기 위해 아파트 건설 동결 (동경: 江東區)

일본 東京都 코우토우(江東)구는 최근 맨션(APT) 건설이 급증함에 따라 난개발 대책을 발표했다. ‘균형 있는 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부족한 공공시설 정비 비용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하는 「개발자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5개 지구에는 맨션(APT) 건설을 동결 또는 연기해 공공 인프라 정비와 보조를 맞춘다는 내용이다.

區는 난개발을 조기에 억제하기 위해 區의 ‘주택기본조례’에 근거해 지도요강을 전면개정·강화하고,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맨션(APT) 개발의 동결·연기를 요청할 대책중점지구를 선정했다. 또한 區는 소학교, 보육원 등 학교 시설 설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5개 지구에는 신규맨션 건설중지를 고려중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동결·연기의 대상이 되는 맨션(APT)은 약 1만호이며, 5개 지구에서 이미 착공된 약 6천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區는 동결·연기 요청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공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기업측에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4. 12)

### ② 항공사진으로 정밀입체지도 제작 (교토)

일본 NEC(Nippon Electric Company) 인터넷시스템연구소는 시가지의 항공사진을 기초로 지상의 거리 풍경을 재현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 NEC는 교토市 150㎡를 대상으로 가로 2km, 세로 1km의 항공사진을 촬영한 후, 같은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화상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해 입체화상지도를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빌딩 높이, 거리에 접한 모습, 간판 등도 사방 25cm의 해상도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NEC는 이 입체지도를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지구네비게이터」라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상에서 걸어가는 방향을 지정해주면 주위의 풍경이 실제로 걸을 때와 똑같이 바뀐다. 또한, 한 상점을 골라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상점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어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거리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소프트웨어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부동산 소개 등은 올해 안에 실용화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4. 18)

### ③ 대체연료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통한 청정도시 조성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대체연료 자동차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 에너지성에서 주관하는 「청정도시 프로그램(Clean Cities Program)」의 회원 자격을 향후 5년 더 연장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市는 그동안 자동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市의 청정연료 자동차는 1996~2001년 사이에 279~807대를 기록해 매년 평균 23% 증가해 왔다.

이에 市환경국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천연가스 등의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대체연료 자동차 운영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인 천연가스·LPG 충전소를 도심과 공항에 설치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380개를 설치했다.

([www.lacity.org/ead/EADWeb-Newsletters/2002Mar.pdf](http://www.lacity.org/ead/EADWeb-Newsletters/2002Mar.pdf))

### ④ 먼지 발생 막기 위해 골재채취장 단계적 폐쇄 (북경)

중국 북경市는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하는 모래와 먼지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3년 말까지 골재채취장과 채석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市는 작년 4월부터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양을 줄이기 위한 정비활동에 착수, 현재까지 불법채취장 214개를 단속해 121개를 폐쇄했다.

市가 시행 중인 골재채취장 및 채석장 폐쇄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향후 동일업종에 대한 사업허가증을 내주지 않는다. 둘째,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업자라 하더라도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셋째, 하천과 하천 양안의 관리 범위 내에서 모래·자갈 등 골재채취를 규제한다. 넷째, 市의 상수원 보호구와 지하수원 보호구에서는 골재채취장을 폐쇄한다.

(인민망 일본어판, 4. 15)

### 5 도시 전역에 ‘꽃단장’ (독일: 브레멘)

독일 브레멘市는 특별예산을 편성해 ‘푸른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市 전역을 대상으로 10만 송이의 꽃을 심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市는 지난해 가을 구근(球根) 2만 개를 심은 데 이어, 올 3월 초에는 팬지꽃 8만 송이를 심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도시 전체에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제방과 공원에 노란색 꽃 10만 송이를 심었는데, 이를 위해 市는 3만 유로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했다. 아울러 꽃을 심고 단장하기 위해 50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www.bremen.de/themen.html](http://www.bremen.de/themen.html))

### 6 지자체청사 ‘옥상녹화’ 민관합동으로 확대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內 지자체들이 청사 옥상을 민간 사업자에 제공해 녹화기술 개발·보급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시부야區는 벽면 녹화에 착수했고, 스미다區는 급수가 불필요한 옥상녹화시스템 실험을 시작했다. 스기나미區는 청사 9층의 직원식당 발코니를 대상으로 녹화를 실시했다. 타이토오區는 옥상녹화 공법을 비용·규모별로 분류해 공개했다. 그리고 都당국도 올 가을을 목표로 都의회 의사당의 옥상 600㎡에 녹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사 옥상의 녹화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6월 시부야區가 청사 옥상에 설치한 녹화모델 전시장에는 지금까지 주민 약 4,400명이 다녀갔다. 또한, 스미다區는 청사 4층 발코니에 16개 녹화업체의 옥상녹화 사례를 전시해 업체간에 기술 경쟁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지자체에 의한 옥상·벽면녹화 사업은 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청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PR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땅값이 높은 都內에서는 민간이 적당한 실험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日本經濟新聞, 4. 11)

### 7 아랍지역 최초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아랍에미리트: 두바이市)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Dubai)시는 아랍지역에서는 최초로 교통정보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운전자들에게 교통상황 및 교량폐쇄 관련 정보, 쇼핑몰에서의 주차정보, 대중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있다. 나아가 온라인으로도 교통정보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운전자들은 출발 전에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市교통당국은 2004년 중반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 Journal, 2002년 4월호)

### 8 도심부 상가진흥 위해 주차장을 공동이용할 수 있는 「주차권」 발행 (일본: 오이타市)

일본 오이타市の ‘도심부상가진흥조합연합회’는 교외형 대형점포의 잇단 개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시내 유동인구를 다시 도심부로 유인하기 위해 쇼핑객들이 어떤 상가를 이용하든 주차장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통주차권」을 발행, 쇼핑객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중앙, 후나이 등의 상가에는 현재 32개의 주차장이 있지만, 각 상가가 독자적으로 주차장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다른 상가가 발행하는 주차권으로는 이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그동안 쇼핑객들의 불만이 컸다.

「공통주차권」은 각 상가가 연합회에서 구입해 쇼핑객들에게 제공한다. 1시간 무료권과 3장으로 1시간 무료가 가능한 보조권의 2종류가 있으며, 상품 구입금액에 비례해 발행된다. 총 32개의 주차장 중 18개 주차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주차장에는 ‘원숭이 마크’가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사진 참조).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8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히로시마市에서는 ‘승용차로 도심부에 진입해도 주차 문제는 걱정 없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 많은 쇼핑객들이 도심부 상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ytown.asahi.com/oita)

### 9 통합형 「주차·버스 카드」 도입 (영국: 노팅엄市)

영국 노팅엄(Nottingham)시는 ‘Park and Ride’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형 「주차·버스 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카드가 도입되면 앞으로 승용차 운전자는 이 카드로 주차 및 대중교통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번에 시범 운용되는 지역은 트렌트대학 일대로, 이미 8개의 부스와 10개의 카드 판독기가 설치되었다. 市는 통합형 「주차·버스 카드」의 도입으로 교통수단간 환승이 용이해져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ocal Transport Today, 338호)

### 10 ‘가난한 예술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시행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市는 2002~2005년까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최근 발표했다. 市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스코티아 거리와 동부 4번가에 있는 스튜디오를 2002년 9월 1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까지 할 계획이다. 명망 있는 지역의 예술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대미술관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市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city.vancouver.bc.ca/ctyclerk/newsreleases2002/NRstudioprogram.htm](http://www.city.vancouver.bc.ca/ctyclerk/newsreleases2002/NRstudioprogram.htm))

### 시립도서관, '도서대출 인터넷 예약 서비스' 실시 (오사카)

일본 오사카 시립도서관이 '도서대출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시내 24개의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주고, 이용자들은 이 ID를 이용해 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대출을 원하는 책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도서관측에서는 주민들이 예약한 책이 확보되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고 있으며, 1명당 8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도 신분증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ID 발급이 가능하다. ID 발행건수는 지난 4월 초에 이미 1만 건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4시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서비스는 일본 전국에서 약 90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리상의 문제로 주로 인구규모가 작은 도서관에서 시행해왔는데, 대도시권에서 실시하기는 오사카시가 처음이다.

(mytown.asahi.com/osaka)

### 공직선거에 전자투표 도입해 투·개표의 정확성 및 신속성 도모 (동경)

일본 東京都의 '전자투표제도 검토연구회'는 전자투표를 총선 등 모든 공직선거에 조기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검토연구회에 따르면, 전자투표 도입에 필요한 초기비용은 인구 30만명, 투표율 54% 등으로 예상할 때 區의 경우 약 2억 5천8백만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 20만명, 투표율 54%로 예상할 때 市の 경우 약 1억 2천2백만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도입비용을 투·개표시의 운용비용 절감으로 회수하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큰 선거에서는 투표의 정확성과 개표의 신속성 측면에서 전자투표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월부터 시행된 '전자투표 특별법'이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전자투표 도입을 인정하고 있어, 검토연구회가 이번에 모든 공직선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日本經濟新聞, 4. 19)

### 월드컵 기간동안 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안내센터 및 24시간 통역센터 운영 (동경)

일본 東京都는 월드컵 관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해 임시관광 정보센터와 24시간 통역센터 설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임시관광 정보센터는 지하철 긴자역과 JR동경역, 나리타공항 등 10군데에 설치되며, 외국인관광객들에게 관광과 숙박안내,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월드컵에 맞춰 5월 24일~7월 2일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이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4인 3교대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4시간 통역센터는 외국어가 서툰 숙박업주나 철도사업자 등이 전화문의를 해오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 등 6개 외국어로 통역해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 두 센터에서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도심부 지도, 관광명소, 긴급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웰컴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도립공원, 문화시설 등의 입장료 할인 혜택도 있는 이 카드는 호텔과 공항 등에 60만부 가량 배포될 계획이다. 한편, 都는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6월 30일에 심야 임시전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都교통 당국은 결승전과 시상식이 밤 11시경에 모두 끝나기 때문에 관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밤 12시 이후의 전차를 증편하고, 막차의 종점을 연장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4. 9)